힘들게 지킨 역사는 왜곡될 수 없다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황해도 옹진반도의 화산리를 본관(本官)으로 하는 한국의 화산李氏가 베트남 정부로 부터 극진한 왕손대우를 받고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한국의 화산이씨가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베트남의 독립을 일군 리왕조의 후손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해마다 리왕조가 출범한 음력 3월15일이면 29대 종손으로 알려진 이상협(李相協,69) 종친회장을 비롯한 종친회 간부들을 왕조출범 기념식에 초청하는가하면 출입국 관리와 세금 사업권 등 모든 대우를 한국인이 아니라 베트남인과 똑같이 해주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한국의 화산이씨에 대한 대접이 지극한지를 짐작케하는 일화가 있다. 지난 95년 화산이씨 종친회의 간부들은 선조가 한국(고려 고종13년,1226년)으로 망명한지 무려 770년만에 베트남을 찾았다. 당시 도무어이 당서기장 겸 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이 모두 나와 이들을 환대했다고 한다.

역사를 살펴 보면 베트남은 1009년 리왕조가 출범하기 전까지만해도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다.

독립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리태조가 수도를 티엔방에서 하노이로 옮기고 본격적인 자치정치를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리왕조는 1226년 중국계인 진씨에 의해 멸망하고 베트남에 남아있던 왕족 72명이 모두 생매장을 당함으로써 왕조의 뿌리가 없어졌다. 일부 리왕조 관계자는 살아남기 위해 성씨를 지금은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성씨인 응웬으로 바꾸기도 했을 정도였다. 이와중에서 다행스럽게 당시 왕의 동생으로 군의 총수였던 이용상 왕자가 배를 타고 베트남을 빠져나와 중국으로 가는 중에 항로를 잃고 표류하다 고려 고종13년에 옹진반도의 화산리에 도착해 그 뿌리를 한국 땅에 내리게 됐다. 이용상 왕자는 이곳에서 두 아들과 함께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을 물리침으로써 그 공로로 화산이씨 성을 받게됐고 이후 이곳 화산을 중심으로 자손을 늘리게 됐다.

이런 흐뭇한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역사는 숨길 수는 있어도 완전히 은폐하거나 왜곡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밝혀 나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만큼 힘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신분을 숨겨 가면서 목숨을 부지한 왕족들은 이제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망명의 길을 떠났던 왕족들은 후손들일 망정 온갖 찬사를 받으며 그 나라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 기술된 역사적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웃 나라에까지 피해를 주면서 만든 침략의 역사를 바꾸거나 왜곡하려 한다면 더욱 그렇다.

베트남의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잊지 않듯이 자신들을 침략했던 이웃나라의 사람들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다.